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
National Accounting · Finance Statistics
2020.11.(vol. 2020-03)

2019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이 보고서는 2020년 8월 국회에 제출된 2019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김 완 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박 윤 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
최 지 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방 민 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회계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이중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는 공공기관법 제39조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43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결산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한국전력을 포함한 36개 공기업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기업 재무성과

2019년 전체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수익)은 145조 1,620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7조 2,3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1조 3,0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7.3% 감소하였다.

최근 3년 동안 공기업[1] 손익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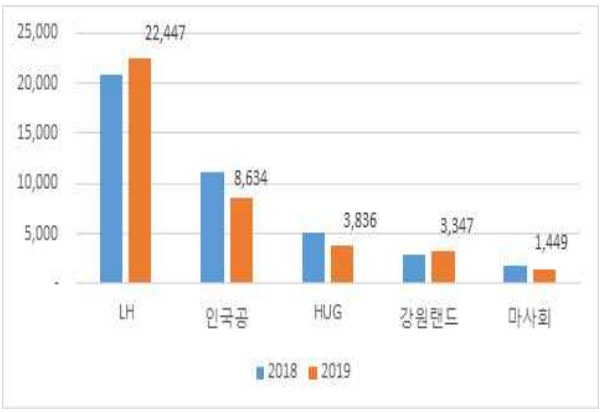
(단위: 억원)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영업수익 (매출)	1,441,753	1,450,158	1,451,620
영업이익	136,436	82,482	72,306
당기순이익	42,760	20,826	13,058
총포괄손익	44,856	31,693	11,409

2019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상위 및 하위 공기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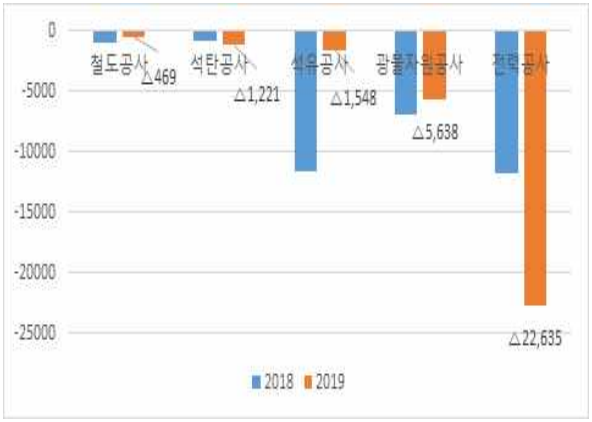
<당기순이익 상위 공기업>

(단위: 억원)



<당기순이익 하위 공기업>

(단위: 억원)



1)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9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주식회사 에스알)는 각각 모회사가 연결하여 재무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합계에서 제외(이하 동일)

2 재무성과의 주요 변동원인

2019년도 공기업 매출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판매수익 및 한국가스공사의 가스판매물량이 감소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분양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1,462억원 증가하였다.

2019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조 3,058억원으로 전년 대비 7,769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상차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의 판매량 감소에 따른 전기판매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당기순손실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공기업 당기순이익 변동원인〉

(단위: 억원)

구분	기관	당기순이익			내 역
		2018	2019	증감	
증가	석유공사	△11,595	△1,548	123,487	전기 대비 손상차손 감소(7,028억원) 및 금융손익 증가(2,229억원)로 인해 전년 대비 1조47억원 감소한 1,548억원의 순손실 시현 *자산·탐사손상 : 8,611억원('18년) → 1,583억원('19년)
	지역난방공사	△2,265	△256	31,820	광주전남 자산손상 관련 비용 감소(2,467억원 → 150억원) 등
	토지주택공사	20,767	22,447	28,602	분양토지 매출 증가(30,612억원)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1,691억원) 등
감소	전력공사	△11,745	△22,635	△3,778	① 국제유가 안정, 원전이용률 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 감소불구, 판매량 감소에 따른 전기판매수익 감소 ② 온실가스 배출비용 증가, 감가상각비 증가 및 퇴직급여 증가 등
	가스공사	5,267	583	△998	① 영업이익은 국내 가스공급사업 및 미얀마사업 수익 증가 등 576억원 증가 ② 해외사업 손상차손 증가(4,305억원) 등
	인천국제공항	11,209	8,634	△283	① 신종자본증권 상환(3,082억원) ② 배당금 지급

3 공기업 재무상태

2019년 공기업 자산은 601.0조원으로 전년 대비 21.0조원 증가(3.6%)하였고, 부채는 388.4조원으로 전년 대비 17.1조원 증가(4.6%)하였다. 공기업 자산·부채는 주로 전력·도로 등 에너지·운송부문 시설투자와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2019년 에너지 부문의 전력설비 증가와 新리스기준서 적용에 따른 사용권자산 인식, 부동산 부문의 임대자산 증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였고, 부채 또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 및 사채 발행, 新리스기준서 적용에 따른 리스부채 인식 등으로 증가하였다.

<자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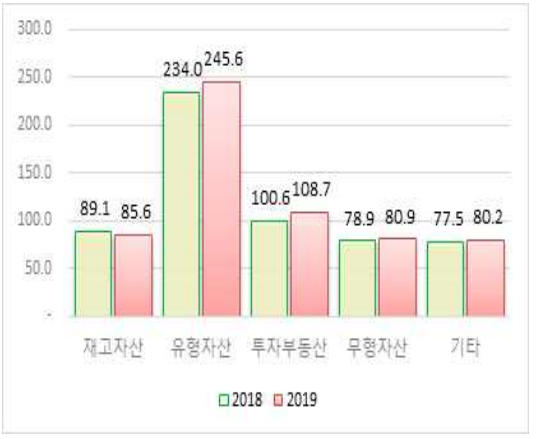
<부채>

(단위: 조원)

공기업 자산 구성은 발전 설비 등 유형자산(40.9%)과 임대주택 등 투자부동산(18.1%) 분양토지 등 재고자산(14.2%) 등이며, 부채는 금융부채(61.7%)와 장단기매입채무(13.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구성>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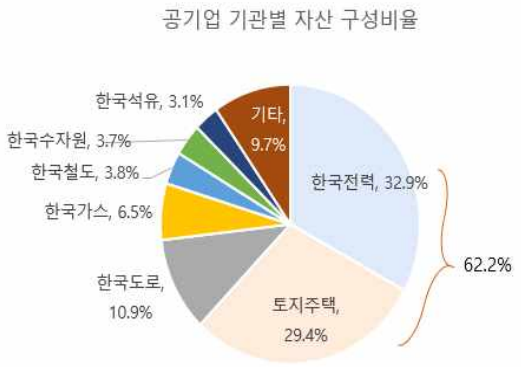
<부채 구성>

(단위: 조원)

공기업의 전체 자산과 부채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회기반시설과 그 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기관별 자산 구성>

(단위: %)



<기관별 부채 구성>

(단위: %)

4 자산 부채의 변동원인

1. 新리스기준서 적용 효과

2019회계연도부터 K-IFRS 제1116호 리스기준서가 공기업 결산에 적용되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채비율이 상승하였다. 특히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의 해외유연탄 장기수송계약을 위한 선박 등에 대한 리스계약이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인식되어 증가한 부채금액이 4.9조원으로 리스기준서 적용으로 증가한 부채 5.7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리스 기준서 도입에 따른 리스부채 인식 및 부채비율 증가>

(단위: 십억원)

부문별	리스부채
<에너지>	**5,398.5**
한국전력공사	4,943.6
…	455.0
<기타>	**221.3**
<부동산>	**39.1**
<교통.수송>	**36.7**
합계	**5,695.8**

*에너지 : 한전, 가스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 등
*부동산 : LH, 주택도시보증, 한국감정원

(단위: %)

* 부채비율 = 부채/자본
** 도입효과를 위해 19년 1/1 기준으로 산출

2. 차입금 및 사채

2019회계연도 공기업의 차입금 및 사채는 238.5조원으로 전년 대비 5.6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부채의 61.4%에 해당한다. 차입금의존도는 39.7%로 민간 28.8%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민간에 비해 자본조달이 용이한 공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부문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는 117.1조원으로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부발전 신규 발전소 건설 등의 투자에 대한 부족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면서 차입금 및 사채가 6.8조원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교통·수송부문은 소폭 증가하였는데 도로공사의 서울-세종, 파주-포천 노선 고속도로 착공 건설비 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 3.9조원 증가 등의 영향이다.

반면 부동산부문 공기업의 차입금 및 사채는 66.4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대금 회수 호조에 따른 차입금 상환에 기인한다.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 규모>

(단위: 조원)

<차입금의존도 추이 민간 비교>

(단위: 조원)

* 차입금 의존도 = (차입금+사채)/총자본

**2019년 민간 차입금의존도는 2018년 수치적용

3. 원전 복구 충당부채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소 사후 해체·복구 및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위한 원전 해제 복구를 위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기말 시점 잔액은 19.1조원으로 고리1호기 폐로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 원전 해체 현실화, 원전사후 처리비용 재산정 등으로 전년 대비 2.9조원 증가하였다.

5 정부출자금 및 배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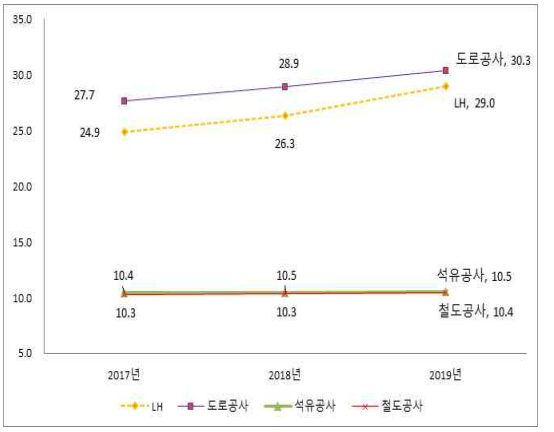
2019년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105.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출자금의 56.1%가 한국도로공사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고속도로 사업 및 임대주택의 재정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기업 자본금 및 정부출자금>

(단위: 조원)

<정부출자금 주요 기관>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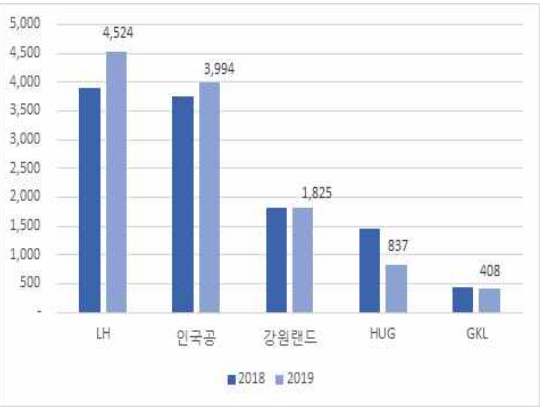
공기업의 배당금은 1.3조원으로 배당성향은 31.0%이다. 배당실시 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13개 기관이나 배당금은 전년 대비 3.4%p 감소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배당액이 증가한 반면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배당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주요 배당 실시기관이었으나 연료비 및 구입전력비 증가로 2018년부터 당기순손실로 전환하면서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 배당금 추이>

(단위: 억원)

<배당액 상위 공기업>

(단위: 억원)



6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

전체 공기업의 2019년 수익성 및 안정성은 하락하였고, 생산성은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 확대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0.7%p하락하였고, 총자산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0.2%p 하락하였다.

사채발행 및 新리스기준서 적용 등으로 부채는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4.7%p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자보상비율도 전년 대비 21.9%p 감소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 매출 증가 등으로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율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다.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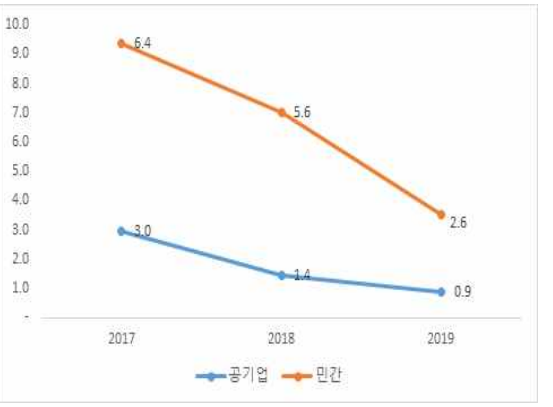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a)	2019년 (b)	증감 (b-a)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9.5	5.7	5.0	△0.7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손익/매출액×100)	6.4	5.6	2.6	△3.0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177.3	178.0	182.7	4.7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100)	283.1	161.6	139.7	△21.9
생산성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액/매출액×100)	32.2	29.6	30.9	1.3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평균)*100)	25.4	25.2	24.6	△0.6
	경제활성화지수 (부가가치액/GDP*100)	2.5	2.3	2.3	0.0

매출액 순이익률은 대체로 민간이 공기업보다 높으며, 민간과 공기업 모두 하락추세이다. 민간과 공기업간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갭이 큰데, 이는 공기업의 경우 해외사업 또는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등 영업외손실 발생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업 수익성 지표 추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매출액 순이익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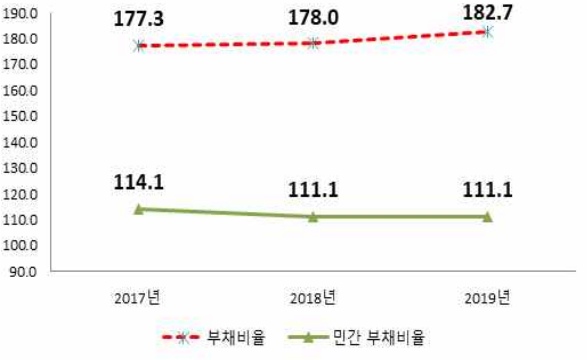


* 민간 : 상장사협의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684사 연결 전체실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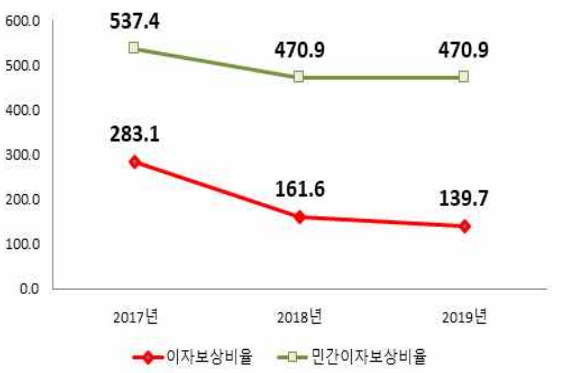
2019년 부채비율은 상승하고, 이자보상비율이 감소하여 공기업의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 마련을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으로 민간에 비하여 부채비율은 높고 이자보상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안정성 지표 추이〉

〈부채비율 추이〉 (단위: %)



〈이자보상비율 추이〉 (단위: %)



* 2019년 민간 부채비율은 2018년 수치 적용

* 2019년 민간 이자보상비율은 2018년 수치 적용